



현상학적 관점에서 농인들의 여가 체험*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n the Leisure Experience of the Deaf

이 보 미**

Lee, Bo-Mi

요약 : 이 연구는 농인들의 사실적 여가 체험을 기술함으로써 현상학적 관점에서의 여가 체험의 본질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지향성'은 후설의 중심 이념으로서 인간의 의식은 언제나 누군가 혹은 무엇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지향성은 의식체험의 본질 구조로서 객관과 주관, 이성과 실천을 매개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신체(몸)는 세계-신체-의식의 불가분의 관계를 연결하는 주체로서 우리가 세계에 존재하고 관계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본다. 이와 같은 관계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쉽게 깨닫지 못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신체가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데 불편함을 느끼며, 신체의 현존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신체가 지향성의 대상이 되며 우리 의식에 그대로 드러난다. 농인들의 여가체험에는 본질적으로 신체가 지향성의 대상이 되는 높은 수준의 신체화된 의식이 잠재해있다. 이 연구 자료는 3인의 수어통역사의 도움을 통해 9인의 농인들과 포커스그룹 면접, 개인 심층면접을 수행함으로써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농인들의 여가체험은 타인과 세계와 의미 있는 관계를 지향하며, 이는 '객체에서 주체로', '신체화된 의식', '신체-주체적 자유'의 세 가지 주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상학적 관점은 신체가 몸과 마음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기존의 이원론적인 입장에서의 수동적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세계에 참여한다는 신체-주체적 관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유는 고정된 감정이나 이상화된 경험이 아니라, 여가 체험 내내 살아있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 속에 신체로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타인과 세계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의식체험 그 자체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여가 체험, 현상학적 연구, 후설, 농인, 지향성, 임바디먼트

ABSTRACT : This study seeks to elucidate the nature of the leisure experience, by describing that of the deaf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Intentionality was a key element in Husserl's thinking, which refers to the notion that human consciousness is always directed towards someone or something and intends to connect an object to a subject. The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has highlighted the role of the body with respect to subjectivity. When we experience pain or illness, bodily dys-appearance is brought to our attention and the body becomes the object of our intentionality. The leisure experience of the deaf potentially involves a high level of conscious awareness of the body as an object of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3423).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8S1A5B5A07073423).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박사. e-mail: bmllee25@naver.com

Ph.D. Department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Sejong University.

intentionality. The data were gathered from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ith nine deaf persons and three sign language interpreters. The results of intentionality analysis revealed that the leisure experience of the deaf is essentially oriented towards a meaningful connectedness with others and the world through the body,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ree emergent themes: (a) from object to subject, (b) embodied consciousness and (c) body-subject freedom.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freedom is not a fixed emotion or ideal experience but something lived through in the experience of leisure. The findings also reveal that the experience of leisure can make meaningful connectedness with others and the world through the embodied consciousness.

Keywords : Leisure experience, Phenomenological study, Husserl, The deaf, Intentionality, Embodiment

I. 서 론

기존의 여가 개념은 자유를 핵심 가치로 공유하며 객관적 관점(시간과 활동)과 주관적 관점(심리적 조건)의 심신이원론 구조에서 논의된다. 여가체험은 개인의 주관성이 강조되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경험과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인간의 행동은 실증적 객체가 되거나 인간의 의식은 상대적, 인과적 관계에서 해석되고 있다. 인간의 복잡 다변한 의식과 행동을 이미 단순 고정 제작된 '관념화된 체험'의 틀로 접근하며, 여가 체험은 다양한 '이상과 상징의 옷'을 입힌 추상적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다(Mannell & Iso-Ahola, 1987). 체험의 직접적 소여를 충실히 기술하지 않은 채 실증적 연구방법에 의한 상대적, 인과적 연관만을 고려하는 작업은 체험의 본질구조와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만다(Weon, 1993). 실증적인 방법만 추구하고, '어떻게 있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세계에 존재하는 주체'로서의 자유의 문제를 해명하지 않는 여가학은 단순한 객체를 만들 뿐이다. 진정한 자유를 실천해야 할 인간이 단순한 객체에 머물 수만은 없다.

후설의 현상학은 객관주의적 학문의 위기를 참된 삶 자체의 위기로 보고, 인간 존재의 궁극

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철학이다(Kang, 1993). 현상학은 진리존재 그 자체로서의 보편타당한 학문이며 이성적 통찰을 통한 보편적 성찰을 철학적 과제로 삼는다(Husserl, 1997, p. 56). 보편타당한 진리구현은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일차적인 순수 의식을 향하게 되는데, 의식과 대상의 상관성이 쟁점으로 드러나는 '지향성'(intentionality)은 현상학의 중심 이념으로서 인간의 의식은 언제나 '누군가' 혹은 '무엇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향성은 경험과학적 차원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경험적, 우연적 속성들을 제거하고 필연적으로 남아 있는 의식의 보편적, 필연적 구조 형식으로서 다르게 있을 수 없는 의식체험을 말한다(Husserl, 2009b, pp. 275-278). 의식체험의 본질 구조인 지향성은 주관과 객관의 상관성 속에서의 의식체험이며, 이성과 실천이 매개될 수 있는 적극적 의지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Choi, 2019). '신체'(몸)는 직접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의식주체의 의지적 기관이며, 세계-신체-의식의 불가분의 관계를 연결하는 필연적인 수단이다. 감각적 의식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움직인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실천적 의지인 신체의 체계에 의해 연관 지워진 결과다(Lee, 1993). 특히 의식은 신체

와의 경험연관에 의해서만 자연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 위치를 차지한다(Husserl, 2009b, p. 208). 현상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신체화된(embodied) 의식을 통해 세계에 참여하고 세계에 존재하게 된다. 여가학과 관광학 분야에서도 현상학적 이념과 통찰이 여가체험의 새로운 개념적 대안으로 제시되어왔고(Cohen, 1979; Harper, 1981; Hwang & Kim, 2019; Yoon, 1996), 주로 신체활동을 동반하는 체험의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적용되며 세계-신체-의식의 불가분의 관계를 어느 정도 구현해냈다고 볼 수 있다(e.g., Han & Yoon, 2020; Lee, 2019; Lee & Cho, 2015; Lee & Lee, 2018). 그러나 현상학이 방법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향성을 통찰의 도구로 여가 체험의 본질적 구조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주로 오랜 시간 신체화된 의식에 적용하며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드물게 시도되고 있지만(e.g., Allen-Collinson & Leledaki, 2015; Ford, 2019), 지향성은 신체가 아프거나 병이 있을 때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데 불편함을 느끼며 보다 선명하게 체험에서 드러난다(Leder, 1990).

병리적 관점에서 농인들의 '신체'는 청각 장애라는 치료하여 제거해야할 객체에 머물렀지만,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들의 '신체'는 수어¹⁾라는 의사소통 방식을 가진 고유한 문화집단으로서 '주체'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농인들의 여가 체험은 농문화²⁾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만큼 농인들 간의 관계 위주로 이루어지는데(e.g., Atherton, 2005; 2009; Kang, 2008), 여가 체험은 농인들의 신체가 주체가 되어 세계에 참여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의 맥락에서 중요한 현상적 장(場)을 제공한다. 현상적 장은 지향적 분석에 의해 선험적 장이 되며, 보편적 의식체험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잠재해 있다(Shim, 2012, p. 97). 따라서 이 연구는 농인들의 사실적인 여가 체험을 기술함으로써 현상학적 관점에서 여가 체험의 본질을 해명하고자 한다. 농인들의 소리 없는 세계, 사태 그 자체로 되돌아가 그것이 왜 그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되돌아가 묻는 현상학적 태도와 과정에서 지향성의 보편적 본질 구조와 유형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가 체험의 대상과 그것이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들 사이의 보편적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현상학이 방법론으로서만 머물고 있는 여가학에서 현상학적 여가학이라는 새로운 융합학문의 이론을 다지고자 한다. 여가의 핵심적인 가치는 자유이며 자유는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철학적 탐구이다. 결국 현상학적 여가학에서 자유는 내적 상상이나 동기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몸(신체)을 담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타인과 세계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유쾌한 대화 그 자체에 있음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여가 체험

여가는 자유로운 시간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객관적 개념과 개인의 심리적 조건에 주목하는 주관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가를 자유로운 시간이나 활동으로 보는 객관적 관점은 계량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유시간과 여가시간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서 누구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아무나 여가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de Grazia, 1962). 즉 자유시간은 일이 아닌 잘 노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 2016년 [한국수어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화'에서 한국수어도 '국어'와 동등한 언어 '수어'로 인정받게 되었음.
2) 청각장애인들에 의하여 형성된 청각장애인 고유의 문화

쉬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지나치게 놀이와 소비 위주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는 욕망과 거리가 먼 자연스러운 인간의 존재와 상태를 의미하는데(Pieper, 2011), 자유시간은 자연스럽지 않은 욕망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서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가가 '체험'이라는 경험적 영역에 가까워지면 이론이나 방법론적 차원에서 심리학적 접근이 보다 유효해진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여가 체험은 다음 세 가지 접근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Mannell & Iso-Ahola, 1987). 여가의 정의적 관점(definitional approach), 여가 체험 후 만족도(post-hoc satisfaction), 즉각적인 의식체험(immediate conscious experience)으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접근은 모두 참여자의 '주관성'을 보다 체계화하여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가 체험을 정의하고 인식하는 시점이나 측정방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정의적 접근'은 사람들이 무엇을 여가라고 인식하고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 결정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접근을 말한다. 여가로 인식할 수 있는 결정요인으로 '상황'이나 '행동'을 제안하긴 하지만 객관적인 시간이나 활동이 아닌 개인의 내재적 동기가 얼마나 관여하는지 그 상황과 행동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여성에게는 일로 인식되는 요리하기, 자녀 돌보기와 같은 행동들이 남성에게는 여가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고,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반복될수록 남성에게도 일과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haw, 1985). 그러나 여가체험은 개인의 내재적 지각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개인의 특수한 심리적 조건과 상황만 더욱 부각되고 중요시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가 '체험 후 만족도'는 여가에 참여한 후 지각의 상태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만족이라는 개념에는 동기, 선호도, 기대, 심리적 보상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다. 만족은 이와 같은 모든 선

제적 욕구들이 충족되었는지 그 결과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모든 심리적 과정을 포함하는 접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가나 관광 체험 중에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 사람들을 만나면서 체험 전에 가졌던 동기가 사후 만족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McIntyre and Roggenbuck(1998)은 뉴질랜드에 있는 동굴에서 래프팅 체험의 감정을 다면적(5지점)으로 구분하여 정서와 감정 그리고 집중의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시간 조사하였는데, 관광 체험 중에 발생하는 즉각적인 감정과 체험 후 회상하는 경험은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체험 후 회상하는 시점에서는 개인적인 중요성과 가치가 포함되어 실제의 관광 체험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험의 본질을 사전 동기와 사후 만족도로 구분해서 그 관계의 영향력이나 일치로 체험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회상의 오류 혹은 체험을 설명하기 위한 인위적 접근에 지나지 않는다.

여가에서 '즉각적인 의식체험'의 연구 방식은 이전 접근(정의적 접근, 체험 후 만족도)보다 그 체험의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체험의 본질적인 측면에 보다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즉각적인 의식체험'은 여가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의식 체험을 현장 그 자체에서 여러 번 나누어 조사하는 연구방법으로서 정서, 심리적 보상, 기대, 동기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다면적 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고, 긍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Lee, Dattilo, & Howard, 1994), 이완이나 각성과 같은 대립적인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게 해주었다(Hull, Stewart, & Yi, 1992). '즉각적인 의식체험'은 인간의 의식은 '지금 이 시간과 공간'(here and now)에 대한 체험이며, 한 순간에 정지하여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거친다는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의식체험의 흐름에 '행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배경에는 몰입을 의미하는 '플로우'(flow)이론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 이것은 Csikszentmihalyi (2004)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여가 체험의 즉각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기록하여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다면적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플로우'는 인간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감정, 최상의 즐거움, 최적의 심리상태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특정한 '행동'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거나 일치되는 관계로 나타나며, 행동이 의식체험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Csikszentmihalyi(2004)가 제시한 대표적 몰입의 행동에는 외과의사의 수술 체험과 체스 플레이가 포함되는데, 일을 하며 느끼는 최적의 심리상태와 여가에서 느끼는 최상의 즐거움이 동일한 몰입의 범주에서 설명되며 몰입 체험이 반드시 여가영역에만 국한된 체험으로 보기 어렵다.

'즉각적인 의식체험'은 기존의 심리학적 접근과 달리 의식을 고정된 감정이나 조건으로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에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었으나, 실제 심리학과 같은 경험과학적 연구방법에서 이와 같은 의식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실시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의식체험'은 실제 체험이 '지금 이시간과 공간에서의 행동'과 같은 매우 단순한 요소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Kelly(1996)는 '내가 지금 돌길을 걷고 있는 매우 순수하고 조건화되지 않은 현상'이 여가 체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쉽고 단순하여 개인의 다양하고 특별한 에피소드식의 심리적 속성들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나타나고, 경험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해 여가체험은 고정된 감정이나 '관념화된 체험'의 틀로 접근하며 개인의 다양한 '이상과 상징의 옷'을 입힌 추상적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2. 여가 체험의 본질

본래 여가는 고대 철학자들이 삶의 진리를 논하고 인간을 탐구하며 토론하던 시간이자 장소이며 활동이었다. 여가는 예술활동이나 정치적 논쟁, 철학적 토론, 일반적 교양을 쌓는 활동을 의미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개념에 잘 나타나는데, 여가는 행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잘 살아가는 동시에 잘 '행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Deci & Ryan, 2000). 잘 살아가는 것은 삶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잘 행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독일의 가톨릭 철학자 Pieper (2011)는 여가는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일치해서 존재의 근원을 응시하는 관상의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Kelly(1996)도 여가는 영혼에 생기를 주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며 자신의 깊은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실존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하였다. 또한 여가는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신 또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Karlis, Grafanazi, & Abbas, 2002), 성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식일, 즉 여가는 일상의 바쁨에서 벗어나 여유로움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Gim, 2011). 철학적 관점에서 여가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삶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자 공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험의 장이라 할 수 있으며, '자유'는 시간이나 활동과 같이 수량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삶의 본질에 가까운 활동이 가능한 상태, 즉 '할 수 있음'의

조건이나 상황에 더욱 가깝다.

후설의 현상학은 객관주의적 학문의 위기와 이로 인한 인간성 소외를 극복할 새로운 이념이자 방법론으로서 현대의 철학뿐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 문화예술 전반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쳐왔다(Husserl, 2009a, p. 23). 실증주의는 모든 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물질화하려는 근대 문명의 번영과 함께 득세하게 되었다. 데카르트가 물질과 정신을 두 실체로 이원화한 이래 객관주의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 자신마저 학문의 기술로써 처리될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후설은 이런 객관주의적 사고방식이 자신이 자라난 토대를 망각하고 자신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빠져 들었는지 전혀 반성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현상학을 참된 앎이 토대가 되는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Husserl, 1997, p. 56). 후설은 순수의식의 힘으로 세계와 자신을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 이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자신의 전 존재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인간성과 이런 인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보편타당한 진리구현은 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일차적인 순수 의식을 향하게 되는데, 의식과 대상의 상관성이 쟁점으로 드러나는 '지향성'(intentionality)은 현상학의 중심 이념으로서 인간의 의식은 언제나 '누군가' 혹은 '무엇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Husserl, 2009b, pp. 275-278).

현상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의식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단순한 복합 이상의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통일되어 흘러가는 체험류이다. 이것은 순수의식으로서의 지향성을 의미하고 인간의 의식과 세계와의 관계는 현상학의 심장이라 할 만큼 중요한 주제이다. 지향성은 단적으로 파악하고 설명되는 것을 뜻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역동하는 지속적인 의식의 흐름 속에 있으며, 그것이 왜 그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되돌아가 묻는 현상학적 태도와 과정에서 보편적 본질 구조와 유형이 드러난다(Husserl, 2016, p. 208). 의식체험의 본질 구조인 지향성은 주관과 객관의 상관성 속에서의 의식체험이며(Choi, 2019), 이성과 실천이 매개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현상학에서 인간의 신체는 생리적으로 혹은 사유 작용에 의해서 단순히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라 신체로부터 인간의 주체성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것을 신체화된(embodied) 의식 그 자체로 본다. 세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와 타인, 그리고 신체와 세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의미하며, 인간은 공간성과 시간성을 통해 자신의 구체성을 드러낸다. 지향성은 사유가 아닌 행위로 드러나며 그것은 신체를 가진 주체, 즉 신체화된 의식이 세계를 열어가는 방식이다(Shim, 2012, p. 52). 신체화된 의식은 우리의 신체가 세계 속에서, 세계를 향하여,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Husserl, 2009b, p. 208). 감각적 의식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움직인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실천적 의지인 신체의 체계에 의해 연관 지워진 결과다. 자유롭다는 표현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관하여 한정되며, 신체는 의지기관이고 나의 순수 의식의 의지에 대해 직접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단순한 물질적 사물들은 단지 기계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며, 오직 간접적으로만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인간의 신체들만 직접 자유롭게 움직이며 신체들에 속한 자유로운 의식을 통해 구현된다(Lee, 1993). 의식체험은 신체를 통해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으로서 현상적 장을 열고 그것을 지평으로 삼아 자유를 실현한다(Shim, 2012, p. 93).

여가학과 관광학 분야에서도 현상학적 관점에서 여가나 관광 체험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Cohen(1979)은 관광체험의 진정성은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거나 단순한 즐거움만을 추구하

는 인위적 체험보다 순례자 그 자체가 되는 종교 체험처럼 삶의 본질적 차원에서 해명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Harper(1981)는 자유는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서 여가 체험 내내 살아있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있으며 실존적인 의미에서 자유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여가 체험은 이러한 대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현상 그 자체라 하였다. Yoon(1996)은 메를로-퐁티의 신체-주체적 개념을 여가 개념 형성에 철학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기존의 여가개념이 수량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질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여가나 관광 체험에서 현상학은 주로 질적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적용되어왔고, 특히 '활동' 중심의 체험에서 그 의미와 내용을 분석하며 세계-신체-의식의 불가분의 관계를 어느 정도 구현해냈다고 볼 수 있다(e.g., Han & Yoon, 2020; Lee, 2019; Lee & Cho, 2015; Lee & Lee, 2018).

그러나 현상학은 사태 그 자체로 되돌아가 그것이 왜 그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되돌아가 묻는 현상학적 태도와 과정에서 지향성의 보편적 본질 구조와 유형이 드러나는 데 이와 같은 연구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상학적 지향성은 주로 강렬하게 체화된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그 지향성이 분석될 수도 있지만(e.g., Allen-Collinson & Leledaki, 2015; Ford, 2019), 신체의 '사라짐과 부재'(disappearing and absent)의 상황에서 보다 더 강렬하게 체험에 드러날 수 있다. Leder(1990)는 신체에 대한 감각은 병이 생기거나, 다쳤을 때 신체와 세계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신체가 구체적으로 현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중요성을 체감한다고 하였다. 손가락에 작은 염증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의 일상은 여러 제약을 느끼게 되며 그 작은 손가락의 역할을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는 일상에서는 의식과 세계를 연결하는 의식체험의 주체가 '신

체'라는 것을 쉽게 자각하기 어렵다.

3. 농인들의 여가

농(deafness)은 신체적 장애로 보는 병리적 관점과 수어라는 의사소통 방식을 가진 언어소수자로 보는 사회문화적 관점이 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농을 뜻하는 'deafness'의 앞 첫 스펠링을 소문자(deafness)와 대문자(Deafness)로 표현하며 그 관점의 차이를 구분 짓고 있다(Reagan, 1985). 병리적 관점은 농인들을 청인 중심의 사회에 통합시키고 적응시키려는 개입으로 농인 아동에게 발화암시법(cued speech), 인공와우이식을 통해 농을 극복해야 하는 장애로 인식하게 하고, 교육은 수어를 배제하고 철저히 듣기 말하기 위주의 구화법을 선호하며 장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느끼게 한다(Kim, 2007; Kim & Kang, 1992; Lee, 2003). 병리적 관점에서 농인들은 청각장애라는 신체적 '객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청각장애인을 '주체'로서 소환하고 그 주체가 소리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 또한 소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어떻게 세계에 참여하고 존재하는지에 관한 이해는 결여되어 있다.

농인들의 신체적 장애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마크 메도프의 강렬한 연극 '작은 신의 아이들(children of a lesser god)'이 영화로 재연되면서부터다. 청각장애가 신체적 장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이방인으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소외되고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Sacks, 2012). 한국에서는 광주인화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던 사건이 '도가니'라는 소설(Gong, 2009)과 영화(2011)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인간에게 있어

언어 능력이 손상된다는 것은 외부와의 심각한 단절과 고립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계에서도 농인들의 언어적 장벽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자성적 연구들이 늘어났다(e.g., Choi, 2005; Jang & Jung, 2010; Lee, 2003). 사회적 관점에서 농인들이 주체적인 입장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어라는 의사소통 방식을 공유한 농문화가 그 중심에 있다. 농문화는 농인이 갖는 독특한 문화이며, 농인들만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속성을 가진 하위 요소들로서 농인들의 일차 언어인 수어와 청인과는 다른 신체적 의사소통, 농인끼리 결혼하는 문화, 농지역 사회, 농교육 기관, 국제적인 수준의 응집력과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포함된다(Reagan, 1985). Cheong(2002)은 '의사소통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농인의 언어 권리권에 접근하고 있고, Yasusui and Kim(2004)는 농인의 언어 권리를 인권 개념에서 고찰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화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인의 정체성을 위해 수어교육을 농인의 언어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사회문화적 관점은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라는 의사소통 방식을 중요한 위치로 전환시키며, 농인들의 '신체'는 수어라는 의사소통 권리와 함께 '주체'로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농인들의 신체가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여가라는 사회적 조건과 상황에서 보다 더 잘 구현되는데, 농인들의 여가는 농문화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만큼 농인들과의 관계 위주로 이루어진다. Atherton(2005; 2009)은 1945년부터 약 50년에 걸쳐 영국 농인들이 정기적으로 갖는 모임과 다양한 여가 활동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농인들의 주된 특징은 청인들과 함께 하는 다른 여가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의 여가

활동은 전적으로 농인들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졌는데, 다른 말로 하면 농인들은 특정한 여가활동이나 취미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농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농인들의 여가문화도 크게 다르지 않다. Kang(2008)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또래의 다른 학생들처럼 평소에는 TV시청이나 인터넷을 즐겨하지만, 시간활용이 많은 주말에는 농아인 협회에서 농인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청각장애청년들도 여가에서 자신들만의 시각적 문화가 반영된 고유의 농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고, 여가활동을 통해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찾아가고 있었다(Park, 2018).

농인들의 여가 체험은 가만히 앉아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는 등 주어진 세계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청인들의 여가문화와는 매우 다르다. 그들에게 가만히 있는 것은 무중력 상태의 느낌과 비슷하고 무성영화를 보며 자신만 정지해 있는 세계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 시각적인 능력이 가능하니 보는 것으로서 관계를 맺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국어는 수어와 문장의 구조가 많이 다르고 개념적, 추상적 단어 또한 너무 많으며, 무엇보다 급속도로 변하는 청인들의 언어문화를 시각적으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농인은 극소수에 해당된다(Park, 2020). 따라서 농인들의 여가문화는 활동적인 형태가 보다 많이 보고된다. 영국 농인들을 대상으로 약 50여 년에 걸쳐 조사한 여가 형태에서도 동적인 형태의 여가활동(e.g., 스포츠 활동, 농인들 간의 방문이나 교류, 여행)이 보다 많이 나타났고(Atherton, 2005), 국내 청각장애학생들도 스포츠 활동, 산책, 여행 등 동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Ok, Yoon, Yoo, & Woo, 2010), 청각장애 학생들은 평소에는 정적인 활동을 주로 하지만 주말에는 농인친구들

과 스포츠 활동과 같은 동적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2008). 이처럼 농인들의 여가 체험은 신체가 주체가 되어 관계 맺고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상황으로서 현상적 장이 되고 있으며, 이 현상적 장에는 지향적 분석에 의해 보편적 의식체험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잠재해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로서 농인들의 사실적인 여가 체험을 기술함으로써 현상학적 관점에서 여가 체험의 본질을 해명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관점을 통찰의 도구로서 적용하여 의식체험의 본질 구조인 지향성이 농인들의 여가 체험에서 어떻게 구현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보편적 타당성으로 해명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농인들의 사실적 여가체험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잠재된 의식체험의 본질 구조로서 체험의 대상과 그것이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들 사이의 보편적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현상학은 사태 그 자체로 되돌아가 그것이 왜 그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되돌아가 묻는 현상학적 태도와 과정에서 지향성의 보편적 본질 구조와 유형이 드러난다. 현상학적 태도를 의미하는 '판단 중지', '괄호치기'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지 숙고하기 위해 당연히 여겨지던 일상생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일시적으로 현상학적인 자세를 추구하는 것이다(Weon, 1993).

보편적 의식체험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현상학적 체험연구는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을 비

롯하여 여러 현상학자들이 전개해나간 현상학적 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현상학적 체험연구 방법들이 존재한다. 반 매넨(van Manen)은 현상학적 기술의 계기뿐 아니라 본질구조에 대한 '해석'의 계기도 인정하는 방법을 개발해나가며, 후설이 구상했던 현상학적 이념을 누구보다도 잘 구현하고 있는 현상학적 체험연구자로 평가받고 있다(Lee, 2014, p. 180). 그가 제안한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방법적 절차는 ① 특정의 체험으로 시선 돌리기, ② 연구자료 수집하기, ③ 체험의 본질적 주제에 대해 반성하기, ④ 본질적 주제에 대해 기술하기, ⑤ 연구대상인 체험과의 강력한 관계 유지하기, ⑥ 연구대상의 전체와 부분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탐구맥락의 균형 유지하기로 구성된다(Lee, 2014, p. 56).

2. 자료 수집

이 연구는 농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보다 더 잘 드러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하였다(purposeful sampling). i) 면접대상자들의 연령층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여가를 체험하는 방식이 한 세대의 특성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다. ii) 어린 시절 청력을 잃은 사람으로 구성하여 소리 없는 세계에서의 지향성이 보다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iii) 농인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농인들의 특성이 보다 더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iv) 농인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주부와 같은 사람들을 골고루 구성하여 농인들의 특성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어 통역사 3인은 농인과 농문화에 익숙한 10여 년 이상의 수어통역경력자들로 구성하였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시간 농인들이 자리를 잡고 지내온 A지역의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이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면접 대상을 추천받았다. 연

구의 윤리적 차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면접 전 농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우선 연구의 목적 및 연구자의 연구이력, 배경을 상세히 알렸다. 자료의 노출정도와 범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결과 제공, 익명성 보장과 원자료 폐기 등 기밀유지 책임을 약속하며 동의한 사람들에게 한해 면접이 이루어졌다.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개인별 심층면접과 2회의 포커스그룹면접을 수행하였다. 개인별 면접 전에 1회의 그룹면접을 수행하여 전체적인 면접 분위기와 개인별 면접에 필요한 압축적인 질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개인별 면접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일치를 파악하고 차이점들은 배제해나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그룹면접을 수행하여 공통적인 요소와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확인해나갔다. 개인면접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포커스그룹면접은 3시간에서 3시간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수어통역센터에서 마련해 준 회의실에서 모든 면접이 이루어졌다. 개인면접 시에는 2인의 청인통역사가 함께 면접에 참여했고 필요에 따라 농민통역사가 해석에 도움을 주었다. 포커스그룹면접 시에는 3인의 청인수어통역사가 참여했고, 면접대상자이자 농민통역사 1인도 면접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농민들과 간단한 인사를 하고 면접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알린 다음 여가 시간을 '누구'와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를 가볍게 묻기 시작하며 추가질문을 진행해나갔다.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하고 더욱 즐거운지, 구체적인 일화와 부가질문을 진행하며 농민들의 지향성이 여가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였다.

농민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신체적 행위를 바탕으로 하며 시각적인 감각 패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료수집 과정에서 직접적인 면접 내용도 중요했지만 '관찰'에서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정보가 더욱 많았다. 본 연구자는 수어통역센터 방문, 농민 단체 미사 참여, 농민 가정 및

농민 단체와 일상 공유 등 다각적인 관찰 방법을 수행하였고, 농민들의 세계를 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화, 문학작품, 다큐 등 다양한 자료를 비교, 수집함으로써 보다 더 소리 없는 세계, 사태 그 자체에서 농민들의 본질적 체험을 반성하고자 노력하였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는 반 매넨(van Manen)의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로서 사실적 체험의 '기술'뿐 아니라 '해석'도 포괄하는 해석학적 현상학이다(Lee, 2014, p. 55). '판단 중지', '괄호 치기', '태도 변경' 등으로 표현되는 현상학적 환원은 전개에서부터 시작되며 '사태 개시'로서 전개된다. 개인의 상대적,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는 '사태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실재를 해명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사태 그 자체로!'를 의미한다. 현상학적 환원이 없는 현상학은 진정한 현상학이라 할 수 없으며 언제나 '~로부터~로의 환원'을 의미하고, 언제나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Lee, 2014, pp. 146-155). 수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의 사실적, 경험적 세계에서 역행하여 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더 많이 사념하고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삶에 파고드는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가 요구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이 필요한데, i)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과 ii) 자유변경을 통한 본질직관, 즉 형상적 환원을 말한다(Lee, 2014: p.170).

i)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에서는 농민들이 일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실적인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농민의 체험을 '말을 할 수 없는 세계'로부터 '소리 없는 세계'로의 태도를 변경하여 사태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청인 위주의 사회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경험은 쉽게 공감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완벽한 소음 차단은 가능하지 않고 소리 없는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세계이다. 현상학적 환원은 이와 같은 '사실적 태도의 일반정립'을 벗어날 때 가능한 환원이다. 왜 농인들이 수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왜 농인들끼리 가정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농인들의 존재론적 입장에서 생각하며 개별면접, 포커스그룹 면접,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 환원해보고 기술하는 것이다.

ii) 자유변경은 어떤 본질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본질을 구현하고 있는 어떤 개별적 대상으로부터 저 모든 개별적 대상들에 공통적인 보편적 속성으로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질 직관은 사실적 자료(인터뷰나 관찰)이외에도 문학작품, 일기, 예술작품 등을 활용하여 상상 속에서 어떤 특정의 주제가 그 체험의 본질적인 주제인가를 확정한다. 소리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농인의 삶은 무수히 많은 개별적 대상들을 자유롭게 산출해나감에 통일적인 일군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 대상들이 현출할 수 있는 '통일적인' 장의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본질이 드러날 수 있다(Lee, 2014, p.152). 청력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관계의 시작이자 가장 마지막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기관이 결핍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연결될 수 없는 세계, 관계 맺지 못함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가니'라는 책과 영화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소리 없는 세계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완전한 단절, 고립된 세계를 의미한다. 우주 체험에 가까웠던 영화 '그래비티(2013, 알폰소 쿠아론 감독)'는 광활한 우주에 홀로 떠 있는 우주인을 보여주며 그 어떤 것라도 연결될 수 없는 무중력의 고독한 우주체험을 몇 초간 무음의 화면 속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했다. 우주는 원래 진공

상태이기에 소리의 진동이 없고 감독은 그 어디에도 몸을 디디고 있을 수 없는, 연결될 수 없는 무중력의 우주 체험을 소리 없는 세계로서 연출했다. '목소리의 형태(2017, 야마다 나오코 감독)'라는 영화에서도 청각장애 소녀의 경험은 왕따 소년의 외로운 경험으로 형상화된다. 이 영화에서 청각장애 소녀의 경험은 깊은 물속에 홀로 잠겨 있는 형상으로 자주 표현되는데, 이것 또한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청각장애의 외롭고 무력한 삶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청력의 '사라짐과 부재(disappearing and absent)'는 관계 맺을 수 없는 세계, 연결될 수 없는 세계로서 환원된다. 농인들의 수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의식체험이 신체로서 구현된 행동이며, 농문화는 농인들이 세계에 존재하고 참여하기 위한 농인들의 지향성이 독특한 행동방식으로 생성, 축적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농인들의 여가 체험은 주체로서 행동하고 존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으로서 신체가 지향성의 대상이 되며(Leder, 1990), 현상학 의미 그대로 신체가 세계와 의식을 연결하는 주체로서 체험의 보편적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는 구조가 잠재해 있다. 이 연구는 농인들과의 직접적인 면접, 관찰, 문학, 예술작품 등을 통해 다양하게 변경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나갔고 지속적인 일치 속에서 통일적으로 연결하며 차이점 등을 배제해나갔고 공통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며 분석해나갔다(Lee, 2014, p. 175). 이 연구는 본격적인 자료 수집 과정 이전부터 농인 관련 문화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개인면접, 그룹면접, 참여관찰을 수행하여 다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면접이후 얻어진 정보가 참여자의 의도와 같은지 통역사들을 통해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환원 과정에서 청인 수어통역사 3인과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하며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농인단체의 임상전문가들로부터 자료의 기술을 통한 주제의 유형과 해석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국내 외 농인과 관련된 영화, 도서, 다크, 문헌 비교를 통해 연구의 사실성과 신빙성을 보완하였다.

IV. 연구결과

1. 면접대상자의 기본 배경

면접대상자들은 대부분 5세 이하에서 사고나 열병으로 청력을 잃어 소리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다만 B씨(60대; 남)는 7세 때 사고로 청력을 잃었는데 사고 자체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고, 소리에 대한 기억도 남아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농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정보는 의식체험의 본질 구조로서 체험의 대상과 그것이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들 사이의 보편적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면접대상자 모두 가볍게 만나는 농인 친구, 일상적으로 만나는 농인 이웃들부터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농인 부모모임, 여행모임, 운동모임, 종교모임 등 대부분 농인들과의 관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산책, 배드민턴, 낚시, 운동, 등산, 세차하기, 프라모델조립, 목공, 요리 등 활동적인 여가활동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대상자의 기본적 배경은 아래 <Table 1>과 같다.

2. 분석 결과

1) 객체에서 주체로

시각장애인이자 청각장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시각 장애는 사물로부터 멀어지고, 청각 장애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소리로서 교류하고 소리로서 문화를 공유하며 소리로서 살아있다는 근거를 부여받는다. 살아있다는 근거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세상 어디에서도 나의 존재를 느낄 수 없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Age	Gender	Age of hearing loss	Causes of hearing loss	With the deaf?/ Activity or Inactivity?	Type of interview
A	82	Male	3	Fever	Yes/Activity	IN 1, FG 2*
B	67	Male	7	Accident	Yes/Activity	IN 1, FG 1
C	62	Female	4	Fever	Yes/Activity	IN 1, FG 1
D	61	Female	5	Fever	Yes/Activity	IN 1, FG 1
E	53	Female	3	Accident	Yes/Activity	IN 1, FG 2
F	44	Female	3	Accident	Yes/Activity	IN 1, FG 2
G	42	Female	4	Fever	Yes/Activity	IN 1, FG 1
H	35	Male	3	Fever	Yes/Activity	IN 1, FG 2
I	33	Male	4	Fever	Yes/Activity	IN 1, FG 1

Note: IN: 개인심층면접, FG: 포커스그룹면접

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관계 맺지 못하는 세계에 홀로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우리 무시하는 게 정말 (강조) 심했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우리는 그저 말 못하는 짐승과 똑같았어요.” (A)

“정말 많이 (강조) 외로웠어요. 애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말을 못하니 선생님한테 이르지도 못하고... 라이터로 불을 켜가며 몸에다 겁을 주기도 했고...” (F)

“20대 때 미싱 일을 잠깐 했었는데, 청인들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웃고 하던데 저희는 그게 전혀 안되잖아요... 저희는 그게 늘 부러웠어요.” (C)

“놀리는 애들이 많았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코피 나게 때리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제 장애를 한으로 품고 가셨어요. 자신이 농사일 간 동안 내가 고구마 먹다 기도가 막히는 사고로 이렇게 된 건데... 자신의 책임처럼... 내가 차라리 시각장애인이라면 자신의 안구라도 줄 텐데 평생 그 말씀만 하시며... 한탄만 하다 가셨어요.” (B)

청각장애는 시각장애처럼 다른 사람의 장기를 기증받는 것으로 대체되는 차원의 장애가 아니다. 시각이 물리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장애에 가깝다면 청력은 보다 경험적 차원의 장애를 의미한다.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가 조직되어 있는 반면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협회가 아니라 농아인협회다(Park, 2020). 소리 없는 세계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농인들이 우연한 사고나 자연스러운 노화로 난청인이 된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분 지으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청각적인 기억, 이미지나 연상이 전혀 없는 농인에게는 소리의 환상조차 존재할 수 없으며, 철저한

무음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소리가 없는 세계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경험이다. 아무리 귀를 막고 모든 소음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멀어지려해도 완벽한 소음 차단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다. 청각장애는 그 장애의 어려움을 공감 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람들로 부터 더욱 멀어지고 소외된다. 인류의 자산과 문화 속에 완전히 몸을 담그는 것,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것, 정보를 얻거나 공유하는 것이 모두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수밖에... 밥 먹고 어떻게든 살아가려면... 한국전쟁, 해방 그 모든 것을 겪으며 25세 때 부터 수제화 만드는 일을 하며 이곳에 정착했어요. 여기 이 근처가 원래 농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에요.” (A)

“부모님이 제가 어려서 청각장애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많은 공을 들였어요. 안 해본 치료가 없고 언어 치료를 받기 위해 왕복 6시간 거리를 매일 10여 년 넘게 데리고 다니며 도움을 주셨죠. 그래도 저에게는 문자가 그림이나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책을 완전히 통으로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했어요. (부모님들은) 지금은 대학까지 나와서 청인 사회에 나가서 능력도 펼치고... 저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농인들 사회에서 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H)

“예전에 작은 화면으로 수어를 보여주었을 때는 보기도 불편했는데 요즘은 옆에서 수어통역을 해줘서 시원하고 정말 좋아요. 옆에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당당해진 기분... 정보력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직역하고 의역하고 다 다른데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수어도 언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브리핑할 때 수어통역사가 옆에 있는 게 정말 감사해서 공공수어통역사에게 직접 만든 수세미를 보냈습니다. 제가 좋았던 마음을 꼭 표현하고 싶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선물을 했어요. 늘 소외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대표해서...” (F)

타인을 향한 지향성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생존의 문제와도 같은 것이며, 모든 인간이 선형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이다. 우주체험에 가까웠던 영화 ‘그래비티(2013, 알폰소 쿠아론 감독)’에서도 넓은 우주에서 외롭고 공허함을 느끼는 우주인들이 지구를 바라보며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아기의 우는 소리, 잔잔한 자장가 소리,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와 같은 일상의 소음들이었다. ‘소리’는 이처럼 살아간다는 신호이자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선형적 조건이다. 이와 같은 소리가 없는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중력 상태의 우주체험처럼 공허함, 고독함 그 자체이다. 외로워서 모여살 수밖에 없었던 농인들, 청인사회에 편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도 농인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농인, 화면 속 수어통역사로 인해 자신도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받는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농인들의 관계는 세계와 관계 맺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떨어져 우주에 홀로 떠다니듯 살아가던 외로운 객체들에게 서로를 연결하고 끌어당기는 거부할 수 없는 중력과도 같은 것이다.

2) 신체화된 의식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관계 맺음은 생존과도 같은 본능적 욕구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2001,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는 한 무인도 섬에 고립된 인간의 치열한 생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우연히 손바닥의 상처로 인해 피가 묻은

월슨 회사의 배구공이 사람 얼굴처럼 보이면서 그 외로움을 지탱해주는 존재가 된다. 농인끼리 가정을 이루고 농문화안에서 살아가며 농인들은 무중력 상태와도 같은 청각장애의 삶에서 서로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주체로서의 삶으로 나아간다. 농인들의 90%이상은 농인들끼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며 농인들의 여가는 농문화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만큼 농인들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Atherton, 2005), 여가체험은 농인들이 주체로서 존재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조건과 상황이 되고 있다.

“저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농인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는 모두 청인들인데요, 필담도 하고 서로 노력을 많이 해줘요. 그래도 농인들끼리 어울리는 게 더 좋습니다. 혼자서 외롭잖아요. 농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정말(강조) 좋습니다.” (E)

“제가 농인 개척 교회를 다니는데, 청인이 4명 농인은 8명 모두 12명 정도 있어요. 목사님은 청인이신데 아내 분이 수어 통역을 너무나 잘 해주셔서 함께 이야기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도사님이신 아내 분이 거의 농인처럼 수어를 정말 잘하십니다. 같이 밥도 먹고 수다 떨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나누고...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고 농인처럼 해야지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I)

“저는 농인들을 위한 가톨릭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만의 미사가 정말 좋습니다. 저희 성당은 농인 신부님이 계시는데 신자들이 멀리서도 모두 오십니다. (질문: 미사도 중요하지만, 농인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안에서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기차타고 오시는 분도 봤어

요. 경기도에서 오랜 시간 버스 타고 오시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D)

농인들이 수어로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외로운 마음을 나누기 위함이었다. 홀로 소리 없는 세계에서 존재하던 개인들이 수어로서 연결되며 그 외롭던 마음들이 공감되기 시작했다. 결국 수어의 본질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보다 마음을 나누는 연결 끈으로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소리 없는 세계에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관계 맺음의 끈은 신체를 통해 보다 더 잘 구현되었는데 이는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농인들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손가락, 입모양, 몸짓 모두를 보아야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집중하는 힘이 매번 볼 때마다 놀라웠다. 모두 서로의 눈을 유심히 바라보며 적극적인 자세로 들어준다. 그것은 그룹면접이나 농인들의 종교 단체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가 매우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수어는 단지 병산의 일각일 뿐, 그들이 서로에게 향해 있는 마음은 신체 그 자체였다. 농인 성당에서 미사가 끝나면 신부님과 대충 목례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마주하고 눈을 바라보며 인사를 나누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저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배우자) 자고 있는데도 깨워서 대화를 합니다. (질문: 가끔은 귀찮거나 피곤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귀찮나요? 저희는 (다시 한 번 강조) 대화가 많습니다.” (B)

“카페나 그런 곳에 가면 청인들끼리는 한 시간도 안 되어서 그냥 나가던데요? 우리는 기본 세 시간... 어떻게 그렇게 금방 헤어져요?” (주변 농인들을 쳐다보며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다른 농인들 모두

의아해하는 표정을 한다) (C)

“맞아요. 저희 부모님(청인) 집에 가면 동생(청인)이랑 엄마도 그렇게 대화를 많이 안 해요.” (I)

“장모님이 농인인데 아내(코다; 농인부모 아래에서 자란 청인)보다 장모님과 마음이 더 잘 통해요. 농문화나 농사회가 좁아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장모님이 알려줘요. 어쨌든 장모님과 수다를 많이 합니다. 가끔 이야기 하다보면 새벽 2시를 넘기기도 해요.” (H)

“부러워요 (그룹면접 농인들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저는 명절에 시댁(시부모님 모두 청인)에 가면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설 거지 마무리 정도 돕다가 그냥 집에 와요. 아직도 가면 불편하고 집에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F)

농인들이 타인을 향해 있는 마음은 신체적 행위 그 자체로 드러났다. 늦은 시간에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몸을 일으키는 일,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3시간 넘게 함께 곁에 있어주는 일, 새벽 2시까지 장모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일 등 농인들의 지향성은 신체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농인들의 신체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에는 신체가 있다. 지향성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단적으로 파악하고 해명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이 지평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운동하는 지속적인 내적 변화 속에 있다(Husserl, 2016, p. 208). 농인들이 주체로서의 의미를 획득하며 존재할 수 있는 배경도 단적으로 형성되거나 고정된 의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신체적 행위에 의존한다. 신체화된 의식은 신체 현상학의 기본적 진리이고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의 극복이며 판넨론과 실재론의 공통 근원이다(Shim, 2012, p. 99). 여가에서 ‘주체’는 사유하는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신체화된

의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3) 신체-주체적 자유

농인들은 타인에게 향한 마음을 신체화된 의식으로 구현해가며,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기반을 마련하고 그 세계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간다. 농인부부 중심의 가정, 농인 중심의 종교단체, 수어통역센터, 지역적인 네트워크 등 세계와 보다 많이 연결되고 보다 많이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주체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조건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있어 자율성은 '할 수 있다'라는 지각과 관계하며,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상황이 많아질수록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Lee, 1993).

“처음 가는 곳을 갈 때도 혼자 가면 분명 긴장되고 무서워요. 길을 잃을까봐... 그런데 농인들하고 함께 가면 정말 길을 잘 찾고 기억도 잘 하는 것 같아요.” (C)

“맞아요. 농인들은 함께 등산을 해도 정말 많은 것을 보며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정보에 매우 예민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다보면 정말 자신이 본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마치 내가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게 돼요.” (H)

“요즘 회원들보면 집에서만 있는 것이 아쉬운데요. 시야를 넓히고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어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농인들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장을 몰라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교환하지도 못하고 겨우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정도입니다.” (F)

“미사를 위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할 것, 이런 저런 것들을 신부님께서 미사 끝나고 많이 알려줍니다. 정보 교환을 해주시는 거죠.” (D)

“저희는 음식을 하고 서로 모여 먹는 일이 흔해요. 외식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요리하는 일이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G)

“제 아내도 집에서 음식 프로그램 보면서 요리하는 것을 즐겨요. 아내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말 못하는 음식이 없어요.(옆에 있던 농인: 남편분도 잘 하시던데요? 지난번에 아귀찜도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에 비하면... 설거지 보조하고 옆에서 훑내 내는 정도...” (B)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고 지지해주는 관계 안에서 농인들은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농인들은 청인에 비해 시각적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있고, 농인들끼리 함께 하면 세계와의 관계를 보다 더 확장하여 경험할 수 있다. 미사라는 종교적 형식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현안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며, 수어통역센터는 서로의 일상은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모든 지지대는 세계를 확장하여 탐험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며, 개인과 개인이 서로 연대하거나 서로 지지해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농인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자신들의 차를 세차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하고 나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또 프라모델 조립하는 것을 즐겨 해요. 어떤 것이 이렇게 (모양을 갖추며) 완성되어 가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I)

“강원도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통나무를 가지고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에 재미를 느껴 나무를 구해서 전기톱으로 잘라보고 만들고 했어요. 서울에 온 후에도

목공에 여전히 관심이 가지만 공간도 그렇고 나무 구하기도 그렇고 여건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이것저것 재료 구해서 만들어 봐요.” (H)

“네,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시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요. 손을 쓰거나 몸을 쓰는 일은 저희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F)

“25살 때부터 수제화 만드는 일을 시작했고 청인들이 만든 신발보다 가격이 비쌌는데도 사람들이 저희들이 만든 신발을 좋아해줬습니다. 그런 손재주가 있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낚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큰아버지나 동네 어르신 집에 놀러 가서 보았던 낚시장비에 큰 관심이 갔어요. 옆에서 유심히 낚시 하는 것을 관찰하며 배웠어요. 지금은 정말 큰 물고기도 잘 잡아요.” (A)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물고기)를 잘 잡는대요. 아마 우리는 그 낚시대의 진동이 손으로 전달되는 감각을 빨리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감이 오면 손끝을 통해 머리까지 전달되는 게 보이는 것처럼 생생해요.” (H)

“그런 것 같아요. 배드민턴을 할 때도 저희는 공이 체에 맞는 순간 그 진동으로 감각을 키워요. 그리고 청인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하다보면 시각적으로도 저희가 훨씬 잘 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청인 코치한테 이것저것 근육이 다치지 않게 운동하는 법을 배우긴 해야 하는데... 그것은 좀 아쉽죠.” (B)

인간에게 있어 자율성은 ‘할 수 있다’라는 지각과 관계하며, 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에서 신체로서 정립되어야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는 자유롭다는 단순한 의식이나 고정

된 감정이 아니라 의식체험이다. 이 의식체험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운동하는 지속적인 내적 변화 속에 있고, 자유와 같은 의식체험의 속성은 세계-신체-의식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신체가 주체로서 정립될 때 구현될 수 있는 조건과도 같은 것이다. 의식은 본질적으로 대상과 접촉함으로써 존재하는데, 생각이나 판단은 대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지향성을 토대로 삼아 대상 자체를 가능하게 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신체로서 체험되기 때문이다(Shim, 2012, p. 93).

“제 아내는 코다인데, 월 때 보면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고 그러다 음악 듣고... 가만히 있어요. 신기해요.” (주변의 농인들도 모두 신기하다는 듯,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서로 쳐다본다) (H)

“맞아요.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어떻게 그렇게 있죠?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나요?” (주변에 있던 농인들 모두 동의하는 표정을 한다) (C)

“농인은 듣지를 못하니깐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해요.”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가만히 못 있어요. 저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한 쪽이 불편한데도 자꾸 나가서 움직이고 운동하니 시부모님(청인)들이 자꾸 뭐라고 하시죠. 그래도 남편(농인)은 제편을 들어줘서 다행이죠.” (G)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 일단 나와서 운동도 좀 하고. 여기라도 와서 사람들이라도 만나야지. 얼마나 즐거워! 우린 정말 대화가 많아요.” (D)

농인들의 수어는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계획할 때보다 ‘지금, 이 곳’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보다 적합한 언어다. 농인들의 수어는 현

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농인들의 신체화된 의식은 '지금, 이곳'에서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농인들의 수어에는 사유적, 추상적, 은유적 표현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감정을 지금 이곳에 있는 나의 표정과 신체로서 함께 전달하는 표현이 더욱 많다. 신체화된 의식은 농인들로 하여금 과거나 미래보다 '지금 이곳'에 보다 집중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농인들의 여가는 '지금 이 시간과 내 공간'에 있는 사람한테 행위로서 전적으로 집중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이 시간 내 공간'에서의 신체화된 의식으로 구현해간다. 농인들에게 자유는 특별한 누군가와 함께 하는 시간, 특별히 즐거운 활동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신체가 주체가 되어 지금 이 시간과 내 공간에 있는 타인과 세계와 충분히 연결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상황 그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식체험의 본질인 지향성은 끊임없이 역동하는 내적 흐름 속에 있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상황과 조건에서 어떤 내면적 상상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신체, 즉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Lee, 1993). 현상학적 관점에서 여가체험의 구조는 신체가 주체가 되어 '지금, 이곳'에서의 세계와 의식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구현해가는 과정이며, 자유는 여가 체험을 지평으로 현상적 장을 열고 '할 수 있다'라는 상황과 조건에서의 세계와 의식간의 유쾌한 대화라 할 수 있다(Husserl, 2016, pp. 42-50).

V. 결 론

이 연구는 농인들의 사실적 여가 체험을 기술함으로써 현상학적 관점에서 여가 체험의 본질을 해명하였다. 현상학은 진리존재 그 자체로서의

보편타당한 학문이며 이성적 통찰을 통한 보편적 성찰을 철학적 과제로 삼는다(Husserl, 1997, p. 56). 심리학이 여가 체험을 이미 단순 고정 제작된 '관념화된 체험'의 틀로 접근하며 개인의 다양한 '이상과 상정의 옷'을 입힌 추상적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현상학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옷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함으로써 자기이해, 자기성찰, 즉 '진리 그 자체로'로 있게 하는 것이다. 농인들의 여가 체험에 잠재된 지향성은 의식체험의 본질 구조이며, 지향성 분석은 경험의 대상과 그것이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들 사이의 보편적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현상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표층의식에서 심층의식으로, 경험론적 자아에서 보편적 자아로의 이행이며, 지향성 분석은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가 체험에 대한 본질규명, 즉 온전한 구성을 드러낼 수 있다(Husserl, 2009b, pp. 275-278).

농인들의 세계는 현상학적 태도에서 볼 때 소리 없는 세계, 관계 맺을 수 없는 세계를 의미하며 그 세계는 청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로운 세계다. 농인들은 청각장애라는 관계 맺지 못하는 세계에서 수어라는 의사소통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특히 농인들의 여가체험은 대부분 농인들간의 관계 위주로 이루어졌는데(e.g., Atherton, 2005; 2009; Kang, 2008), 여가는 농인들이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시간과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도 농인들의 여가 체험의 구조는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의 맥락에서 모두 신체화된 의식을 통해 드러난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농인들이 함께 하는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오고가는 일, 몇 시간을 함께 같은 자리에서 수어로 이야기하며 들어주는 일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화된 의식을 통해 드러난다. 농인들은 서로 가

정을 이루고 공통된 생활양식과 취미, 일상을 나누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함께 요리를 하며 나누어 먹는 일, 수어 통역센터에 오고 가며 농인들 만나기, 주말마다 농인 성당이나 교회에 가기, 농인들과 함께 공통된 취미 즐기기 등 일상과 크게 분리되지 않은 소소한 움직임들이 여가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농인들의 수어는 '지금, 이곳'에서의 나의 생각과 감정을 신체로서 표현하는 언어이다. 농인들의 수어에는 사유적, 추상적, 은유적 표현보다 '지금 이곳'에서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감정을 나의 신체로서 전달하는 표현이 더욱 많다(Sacks, 2012). 신체화된 의식은 농인들로 하여금 과거나 미래보다 '지금 이곳'에 보다 집중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신체를 쓰지 않는 여가 행동(e.g., 영상 시청, 음악 듣기)을 이해 못하거나 견딜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신체가 지향성의 대상이 되며, 자유는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곳'에서의 자연스러운 지각의 조건과 관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유롭다는 표현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관하여 가능한 조건이다. 신체는 의지기관이며 나의 순수 의식의 의지에 대해 직접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인간의 신체들만 직접 자유롭게 움직이며 신체들에 속한 자유로운 의식과 그의 의지를 통해서만 구현된다. 이 자유로운 의식흐름 속에서만 객체로서의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이 구성될 수 있다(Husserl, 2016, pp. 42-50). 많은 농인들이 이주해 살았던 마서즈 비니어드 섬은 수어가 공통의 언어였고, 그 섬에서는 농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던 '자유로운 세계'였다(Groce, 2013). 나의 신체가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는 세계는 자유를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농인들은 청각장애라는 삶이 주어졌지만, 신체화된 의식으로 세계에 존재하고 타인과 연결되며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

는 조건과 상황 자체를 끊임없이 구현해 가는데, 이러한 과정 자체가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는 단적으로 파악하거나 정제된 감정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서 여가 체험 내내 살아있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 속에 몸(신체)을 담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타인과 세계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유쾌한 의식체험 그 자체에 있다(Harper, 1981).

이 연구는 농인들의 의식체험의 구조인 지향성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신체" 주체적 관점에서 현상학적 의식체험의 구조를 해명하며 기존 신체의 의미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여가 체험은 개인의 주관성이 강조되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고 신체는 실증적 연구방법에 의해 객체가 되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주로 건강이나 체중 감소와 같은 목적을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 특히 여가는 자유라는 개념 아래 할 수 있는 자유보다 하지 않을 자유로 더욱 치우치고 있고, 신체는 일을 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해야 하는 몸'으로, 여가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몸'으로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도 발을 디디지 못하는 무중력의 우주인처럼 소외되고 있다(Iso-Ahola, 2015). 현상학적 관점에서 신체는 세계-신체-의식의 불가분의 구조를 연결하는 필연적인 수단으로서 인간이 세계에 존재하고 참여하기 위한 주체적 관점으로 해명할 수 있었다. 둘째, "자유"를 삶의 보편적인 구조에서 해명하며, 기존 상대적, 인과적, 경험적 자유 속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자유는 지각과 선택의 맥락에서 중요한 속성으로 작용하며 소유할 수 있는 무엇이거나 이상화된 체험으로 이해되고 있고(Mannell & Iso-Ahola, 1987), 이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또 다른 차별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지향성 분석에서 자유는 여가 자체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며, '할 수 있다'라

는 삶의 본질적인 '시간과 공간'의 맥락과 관련되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조건과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인간에게 삶은 이미 유한한 시간으로 주어졌으나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에 신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Shim, 2012, p. 120). 자유는 사유하는 의식이 아니라 신체화된 의식으로서, 타인과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서의 보편적 조건과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한다. 셋째, 체험의 직접적인 소여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살아가는 "과정" 중심의 여가 체험의 본질을 해명할 수 있었다. 심리학은 체험의 단순한 과정보다 체험의 전후를 설명하는 단계에 머무르면서 개인의 독특하고 특별한 체험으로 이해되거나 정체된 감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Mannell & Iso-Ahola, 1987). 현상학적 관점에서 지향성은 단적으로 파악하거나 정체된 의식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의식흐름으로서, 여가 체험의 본질은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소소한 활동을 신체로서 구현해가며 타인과 관계 맺고 세계에 참여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여가 체험의 본질을 성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상학적 관점에서 지향성은 의식체험의 자연스러운 구조로서, 여가 체험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인위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조건이나 상황으로서 신체의 의미가 보다 중요하게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습관'은 최근 사회과학 분야의 자기계발 주제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여가에서 좋은 습관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신체화된 의식은 심리학이 그 학문적 특성 상 잘 설명할 수 없는 습관적 행동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어떤 습관을 획득한다는 것은 신체가 어떤 의미를 배우는 것이고, 어떤 의미 매커니즘을 자신의 의식구조로 만드는 '신체의 역사'와도 같은 것이다(Han, 2008).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 자기 착취의 또 다른 형태가 되어 가고 있는 기존의 습관 이론에 보다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는 현상학적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여가에서 좋은 습관 형성의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부정적 환경과 상황을 성숙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여기는 '자유'라는 이름 아래 긍정적 감정만을 최대로 추구하고, 부정적 감정은 철저히 외면해도 되는 공간으로 여겨졌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지향성은 삶의 존재 기반에서 성찰되는 의식체험이며 정체나 소유의 감정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적 흐름에 있다. 이것은 삶의 회로에락을 성숙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여가 교육 혹은 정책 차원에서도 부정적 생활 사건이나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회적, 시혜적 입장에서의 여가 기회나 관광이 아닌 의식체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관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가는 주체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또 다른 삶의 영역이라는 성찰을 공론화할 수 있다. 자유는 개인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책임이 있는 여가 행동은 기존의 관념적, 한시적, 회피적 여가에서 활동적, 지속적, 적극적 여가행동으로 전환시키며, 여가와 일, 자유와 부자유의 양극단적인 낙차를 줄이고 균형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차원의 여가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올바른 여가기술을 위한

청소년 및 웰에이징(wellaging), 평생교육 등에 현상학적 ‘여가콘텐츠’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모두에게 당연했던 일상을 당연하지 않은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가볍게 오고 가던 장소, 습관처럼 할 수 있었던 행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신체’는 무엇을 의미했고 ‘자유’는 어떤 조건을 의미했었는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참회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여가 정책과 사회구조도 물질주의, 상업주의 사회가 아닌 삶의 본질적 차원에서 자유에 관해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고, 서로 간의 강한 관계성을 회복하며 진정한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농인들의 면접과 관찰, 현장 그 자체에서 얻은 자료를 현상학과 순환적으로 해석하며 여가 체험의 본질을 되묻고 사념하였다. 여가학에서 비교적 생소한 현상학적 관점과 이념이 문헌고찰에서 선행된다 하여 전적으로 문헌고찰에 근거한 체험 구성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 면접 내용은 농인들의 수어를 청인수어통역사가 국어적 표현으로 기술한 것으로서 내용은 동일하나 사실적인 수어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소리 없는 세계에 관한 사태 개시를 통해 여가 체험의 본질을 밝히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현상학적 환원’은 후설이 가장 강조한 개념이면서도 완벽한 ‘환원’은 있을 수 없다는 여지 또한 남겼다. 따라서 현상학적 여가학이 하나의 이론으로서 타당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상적 장으로서의 여가 체험의 본질이 해명되기를 기대해본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Author's contribution:

Lee, Bo-Mi: Study Conception and Design,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Results, and Writing(Original draft preparation).

참고문헌

- Allen-Collinson, J., & Leledaki, A. (2015). Sensing the outdoor: A visual and haptic phenomenology of outdoor exercise embodiment, *Leisure Studies*, 34(4), 457-470.
- Atherton, M. (2005). *Choosing to be deaf: Leisure and sport in the deaf community of northwest England, 1945-199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e Montfort University, Leicester, UK.
- _____ (2009). A feeling as much as a place: Leisure, deaf clubs and the British deaf community. *Leisure Studies*, 28(4), 443-454.
- Cheong, E. (2002). A study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right of communication and the social inclusion of a example of sign language: Based on the discussion about its social recognition and rightnes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3(3), 109-124.
- Choi, S. K. (2005). The longitudinal study on deaf school teachers' attitudes toward deaf cultur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1), 57-76.
- Choi, W. S. (2019). 후설의 현상학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유기적 이해. *Gho Hwang Non Jib, Kyung Hee Graduate School*, 65, 3-31.
- Cohen, E. (1979). A phenomenology of tourist experience. *Sociology*, 13, 179-201.
- Csikszentmihalyi, M. (2004). 『몰입』.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최인수 역). Seoul: Hanulim. (Originally pub-

- lished in 2002)
- de Grazia, S. (1962). *Of work, time and leisure*. New York: The twentieth Fund.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Ford, A. (2019). Sport horse leisure and the phenomenology of interspecies embodiment. *Leisure Studies*, 38(3), 329-340.
- Gim, J. M. (2011). The nexus of leisure and spirituality: Based on western spiritual tradition. *Journal of Leisure Studies*, 8(3), 75-91.
- Gong, J. Y. (2009). *Dogani*. Paju: Changbi.
- Groce, N. E. (2013).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어로 말한다』. *Everyone here spoke sign language* (박승희 역). Paju: Hangilsa. (Originally published in 1985)
- Han, J. S. (2008). On habit and habitual knowledge: A dialogue between Merleau-Ponty and neuroscience.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 29, 1-25.
- Han, S. H., & Yoon, J. H. (2020).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ourism experience in autobiographical memory.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4(8), 33-54. <http://dx.doi.org/10.17086/JTS.2020.44.8.33.54>
- Harper, W. (1981) The experience of leisure. *Leisure Sciences*, 4, 113-126.
- Hull, R. B., Stewart, W. P., & Yi, Y. K. (1992). Experience patters: Capturing the dynamic nature of a recreation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3), 240-252.
- Husserl, E. (1997).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Die Krisis der europa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anomenologie* (이중훈 역). Paju: Hangilsa. (Originally published in 1954)
- _____ (2009a).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1』. *Ideen zu einer reinen Phanomenologie und phanomenologischen Philosophi* (이중훈 역). Paju: Hangilsa. (Originally published in 1977)
- _____ (2009b).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2』. *Ideen zu einer reinen Phanomenologie und phanomenologischen Philosophi* (이중훈 역). Paju: Hangilsa. (Originally published in 1977)
- _____ (2016). 『경험과 판단』. *Erfahrung und Urteil-Untersuchungen zur Geneologie der Logik* (이중훈 역). Seoul: Minumsa. (Originally published in 1999)
- Hwang, J. Y., & Kim, C. W. (2019). A study on the essence and authenticity of templestay experience through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y.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3(2), 29-53. <http://dx.doi.org/10.17086/JTS.2019.43.2.29.53>
- Iso-Ahola, S. E. (2015). Conscious versus non-conscious mind and leisure. *Leisure Sciences*, 37, 289-310.
- Jang, Y. Y., & Jung, H. Y. (2010).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fe of the deaf as the minority group.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4), 515-543.
- Kang, H. J. (2008). *A qualtative analysis on activities of after school hours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gu.
- Kang, Y. A. (1993). On the phenomenological method.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32, 270-277.
- Karlis, G., Grafanaki, S., & Abbas, J. (2002). Leisure and spirituality: A theoretical model. *Society and Leisure*, 25, 205- 214.
- Kelly, J. (1996). *Leisure* (3rd ed). Boston: Allyn & Bacon.
- Kim, B. H., & Kang, C. W. (1992). 청각장애 자녀

- 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경험: 질적분석과 해석.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9(0), 21-35.
- Kim, K. J. (2007). Study on family culture of deaf peopl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8(3), 249-260.
- Leder, D. (1990). *The absent bo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Lee, B. M. (201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role of leisure in post-traumatic growth of firefighter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3(2), 179-204. <http://dx.doi.org/10.17086/JTS.2019.43.1.179.204>
- Lee, B. M., & Cho, M. H. (2015).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into a spiritual experience of running.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9(1), 63-78.
- Lee, C. R., & Lee, H. R. (2018). A study on the meaning of nature-friendly leisure activities on the of modern peopl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2(10), 135-155. <http://dx.doi.org/10.17086/JTS.2018.42.10.135.155>
- Lee, J. H. (1993). 후설 현상학의 실천적 의미.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 7, 139-161.
- Lee, J. W.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f identity and psychosocial functions of korean deaf adolesc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4(4), 173-204.
- Lee, N. I. (2014).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Paju: Hangilsa.
- Lee, Y., Dattilo, J., & Howard, D. (1994). The complex and dynamic nature of leisure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195-211.
- Mannell, R. C., & Iso-Ahola, S. E. (1987). Psychological nature of leisure and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 314-331.
- McIntyre, N., & Roggenbuck, J. W. (1998). Nature/person transactions during an outdoor adventure experience: A multi-phase analysi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1, 401-422.
- Ok, J. D., Yoon, B. C., Yoo, J. S., & Woo, J. Y. (2010). A survey study of the leisure activities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hearing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3), 527-549.
- Park, B. S. (2020). 청각장애와 수화. *The Radical Review*, 83(3), 191-222.
- Park, J. Y. (2018). A hermeneutic study on the experience of leisure life: Focusing on young deaf people.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31(11), 435-454.
- Pieper, J. (2011). 『여가와 경신』. *Muße und Kult* (김진태 역).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Reagan, T. (1985). The Deaf as a linguistic minority: Educational considerations. *Harvard Educational Review*, 55, 265-277
- Sacks, O. (2012). 『목소리를 보았네』. *Seeing Voices* (김승욱 역). Seoul: ALMA (Originally published in 1989)
- Shaw, S. M. (1985). Gender and Leisure: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leisure tim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 266-282.
- Shim, G. Y. (2012). *신체와 자유*. Seoul: Greenbee
- Weon, S. R. (1993). A study on the phenomenological studies.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32, 395-426.
- Yasusui, A., & Kim, B. (2004). On the linguistic human rights of the deaf.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3(1), 63-78.
- Yoon, Y. T. (1996). A qualitative approach of leisure concept with applied M. Merleau

Ponty's existential phenomenology.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13, 119-131.

Received October 09, 2020

Revised December 11, 2020

Accepted January 25, 2021